

옛날(昔日) 가시리(伽時里) 문씨영감(文氏令監)이 조식이 웃언¹⁾하다²⁾ 망신해야³⁾ 딸조식(女子息) 하나를 낳데다.

훈설 두설 일곱설(七歲) 나는 해연 문씨아기씨가 가망박세기⁴⁾ 앓언⁵⁾ 드린동산⁶⁾에 탈⁷⁾ 타레 간⁸⁾ 디⁹⁾ 모진 광풍(狂風)이 부난 미연도질(迷眩道一)¹⁰⁾허연 너븐도¹¹⁾로 진¹²⁾루¹³⁾로 뱅긔오름¹⁴⁾으로 무¹⁵⁾년아리¹⁶⁾로 여무낭아리¹⁷⁾ 붉은오름¹⁸⁾으로 살란이¹⁹⁾ 말차²⁰⁾ 알서늘(下善里) 웃서늘(上善里) 팽풍²¹⁾치기²²⁾로 덩기명²³⁾ 브롬(風)을 먹고 구름을 타고 비치철국²⁴⁾하고²⁵⁾ 인상식(人相食)허여설란 가막새²⁶⁾를 벗을 삼고 나미 돌굽²⁷⁾은 집을 삼고 백록담(白鹿潭)일 가 일곱헬(七年) 살아가니 몸동인²⁸⁾ 가시자왈²⁹⁾에 훑어 문³⁰⁾딱³¹⁾ 허물이요, 남(木)이 뉘여³²⁾ 늦³³⁾이 돈고 손(手)광 발(足)은 사름이 뉘여³⁴⁾ 잇어지니, 호근이(好近里)³⁵⁾ 허포수(許手)가 토제비발레³⁶⁾ 토제비감투³⁷⁾ 진보선³⁸⁾에 진신³⁹⁾ 신어 일곱⁴⁰⁾작⁴¹⁾ 마새총(馬上銃)을 둘러메고 부리 좁은 약돌기⁴²⁾ 둘러지고 사농⁴³⁾하⁴⁴⁾레⁴⁵⁾ 고지⁴⁶⁾를 갔더니 서열⁴⁷⁾ 밑에 거무룩⁴⁸⁾헌⁴⁹⁾게 비친다. 짐승인가, 쟁역⁵⁰⁾하고⁵¹⁾ 마새총(馬上)에 귀약통⁵²⁾ 남⁵³⁾늘

1) 없어 하다가.

2) 늙어서.

3) 작은 바가지.

4) 가져서.

5) 표선면 가시리(表善面伽時里)의 지명.

6) 딸기.

7) 갔는데.

8) 길을 잃어서의 뜻.

9) 표선면 성읍리(表善面城邑里)의 지명.

10) 가시리(伽時里)의 지명.

11) 가시리(伽時里)의 약명(岳名).

12) 남원면(南元面)의 지명.

13) 남원면(南元面)의 지명.

14) 가시리(伽時里)의 약명(岳名).

15) 남원면(南元面)의 한라산(漢拏山) 가까이 있는 지명.

16) 남원면의 한라산 가까이 있는 지명.

17) 표선면 성읍리(表善面城邑里)의 지명.

18) 다니면서.

19) 미상. 음식을 아니 먹다의 뜻이라 함. 그 절기(節期)에 나는 곡식이란 뜻으로 「철곡(節穀)」이란 말이 있음.

20) 까마귀.

21) 나무 돌굽.

22) 몸뚱이는.

23) 가시덤불.

24) 모두.

25) 서호읍 호근리(西好邑好近里)

26) 가죽버선.

27) 가죽감투.

28) 땅이 진 때 신는 가죽 버선

29) 땅이 진 때 신는 가죽신.

30) 일곱마디.

31) 약도리. 노끈 따위로 그물같이 맺어 둘레를 끈으로 꿰어 줄이고 속에 도시락 따위를 넣어 저 다니는 물건. 본래 약을 캐러 다닐 때 썼음.

32) 사냥하러

33) 꽃()

34) 돌무더기.

35) 거무스름한.

개³⁸⁾ 가막췌³⁹⁾에 불을 놓자 허단 못음이 어중간허여⁴⁰⁾ 간보난⁴¹⁾ 눈은 사름의 눈이요, 몸은 나미(木)가 된 게 이시니,

『너 생인(生人)이냐? 구신(鬼神)이냐?』

『생인(生人)이웨다.』

『그레민 너가 누구냐?』

『가시리(伽時里) 문영감(文令監) 딸이웨다.』

『어떻 허난⁴²⁾ 이덜⁴³⁾ 오랴트냐?⁴⁴⁾』

『그런 것이 아니라, 혼일곱살(七歲)에 가망박새기 앓언 ㄷ린동산에 탈 타레 오랴단 모진 광풍(狂風)을 만난 미연도질(迷眩道一)허여 칠년을 살았수다.』

『뭇을 먹고 살았느냐?』

『뽕를 먹고 구름을 타고 인상식(人相食)하고 비치철국하고 가막췌 뱃을 삼고 나미(木) 돌굽은 집을 삼고 살았수다.』

허씨포수(許氏砲手)가 문씨아길 업언 오란⁴⁵⁾ 먼 올레예⁴⁶⁾ 세와 두고 문씨영감(文氏令監) 신디 들어간 보난 영감(令監)은 조식(子息)잃어 혼탄(恨嘆)허연 얼굴이 뜰려시난⁴⁷⁾

『영감은 무슨 수심(愁心)이 만홉네까?』

『난 늦어사 딸 허나를 나았는디 ㄷ린동산 탈 타레 가망박새기 앓언 간 게⁴⁸⁾ 모진 돌풍(突風)이 불어 미연도질(迷眩道一)허여, 일곱헬 쫓아도 쫓다 버쳐 아기 생각홉네다.』

『영감님 저 올레예 강 보십서. 당신의 조식이냐, 아니냐.』

올단 눈물 확확 쏘고 나가 보니 내 조식이 분명하다. 짓분⁴⁹⁾ 사례(謝禮)로 잘 데접(待接)허여 왕래⁵⁰⁾ 체와 보내고 아기안티 음식을 주뵈 것⁵¹⁾을 아니 먹어가난 아방(父)이 말허기를

『어떤 일로 것을 아니 먹느냐?』

『나는 이 시상(世上) 사름이 아니우다. 할로백관(漢拏百官) 산신백관(山神百官)이우다.』

36) 겨냥하고

37) 화승총(火繩銃)의 화약을 담는 통.

38) 화약, 탄알 등을 넣는 그릇.

39) 옛 화승총의 귀약에 불을 붙이는 기구.

40) 미심스러워.

41) 가 보니.

42) 어찌해서. 어떻게 하니.

43) 여기들.

44) 왔느냐.

45) 업어 와서

46) 집으로 드는 골목길.

47) 뜰렸으니까.

48) 간 것이. 가던데.

49) 기쁜

50) 왕래. 곧 왕래 여비

51) 음식. 먹이. 특히 어린 아기가 먹을 밥이나 죽을 「것」이라 함

흔 손에 단수육갑(單數六甲)을 지프고⁵²⁾ 흔 손에 오영팔과(五行八卦)를 지퍼 천지운기(天地運氣)를 알아간다.

이 때, 정의원(旌義員)이 은통⁵³⁾을 이어붙어⁵⁴⁾ 파직(罷職)이 됩니, 삼만관숙 육방하인(六方下人) 부르고

『문씨아기쉴 독가메(獨駕馬)에 모사오라.⁵⁵⁾ 문점(問占)허여 보키여.⁵⁶⁾』

문씨아길 모사 가 동원(東軒) 안에 청하고 짐치원(金緻員)⁵⁷⁾ 말하기를

『은통을 이어붙어 파직(罷職)하게 됩니, 짐(占)을 빌어 허저 흡네다.』

아가씨가 단수육갑(單數六甲) 지퍼 보고,

『영주산⁵⁸⁾ 오름(岳) 앞으로 쳇 자국 드던 디 텃병에⁵⁹⁾ 일르민⁶⁰⁾ 있읍네다.』

일러 보니 과연 잇었더라. 파직(罷職)을 면해 간다.

은통은 관가(官家)에 들른⁶¹⁾ 강툼인⁶²⁾이가 곱져분 건디,⁶³⁾

강툼인이가 문씨아기?라

『날 살려줍서.』

『너는 청산면 방뒗개로⁶⁴⁾ 독선(獨船) 잡아 육지(陸地)로 미연 도전허민⁶⁵⁾ 살 것이고 그렇지 아 니허민 죽나.⁶⁶⁾』

『나가 ⁶⁷⁾ 살아지민 아가씨나시 토시동⁶⁸⁾ 전전매기⁶⁹⁾ 열두폭 대공단(大貢緞) 훗단치메⁷⁰⁾

를 허여 보내쿠다.⁷¹⁾

하고 미연도전허여 샅데다.

정의원(旌義員)은 어떻허민 은통 좇은 은혜(恩惠)를 다허린 허연⁷²⁾

52) 짚고

53) 인궤(印櫃)

54) 잃어버려

55) 모셔오너라

56) 보겠다.

57) 김치(金緻)는 광해군(光海君)때 제주 판관(濟州判官)임.

58) 표선면 성읍리(表善面城邑里)에 있는 산.

59) 잔디 덩이.

60) 일구면.

61) 따른.

62) 통인(通引).

63) 숨겨버린 것인데.

64) 성산면 신양리포(新陽里浦)로.

65) 도망가면의 뜻.

66) 죽는다.

67) 내가.

68) 토시

69) 미상 의상(衣裳) 이름?

70) 훗치마.

71) 보내겠습니다.

72) 다하랴 해서

『연주청⁷³⁾에 오물떡⁷⁴⁾을 멩글아⁷⁵⁾ 칠첩반상(七—飯床)에 출령⁷⁶⁾ 아가씨안티 올리라.』

잘 위데하고 삼만관숙이 독다메(獨駕馬)에 모사 오난, 문씨아기 부모(父母)덜안티 하는 말이

『난 금시상(今世上) 사름이 아니우다. 하로백관(漢拏百官) 산신백관(山神百官)으로 들어살 사름
이우다. 날랑 죽거들랑⁷⁷⁾ 아버지 살아난 당남우영⁷⁸⁾ 왕돌 알로⁷⁹⁾ 좌정(坐定)허영 정축(丁丑)날은
가는 사름 오는 사름안티 다 인정(人情)⁸⁰⁾을 받으쿠다.』

하난, 어떤 집원 가민 밧겿딜로⁸¹⁾ 산신칠성(山神七星)으로 우로(慰勞)하고, 어떤 딘 가민 안으
로 안칠성(—七星)⁸²⁾ 으로 우로(慰勞) 홉네다.

이 아길 잘 우로 아니하민 강비리도⁸³⁾ 불러주곡 물비리도 불러주곡 눈아피(眼疾)도 불러 주곡
열두송엄(十二凶驗)을 불러 줍네다.

이 한집을 잘 우로하민 그 집안이 일만복(一萬福)이 오는 법입네다.

- 表善面 伽時里 男巫 韓白 口誦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721-726.

73) 연주꿀

74) 찹쌀로 동그랗게 만들고 윗부분을 움푹 패게 하여 꿀이나 엿을 넣은 떡.

75) 만들어.

76) 차려서.

77) 죽거든.

78) 가시리 (伽時里) 발이름

79) 큰돌(바위) 아래로.

80) 신에게 바치는 재화(財貨)

81) 바깥으로.

82) 수렵(狩獵)의 풍등(豐登)을 시켜 주는 칠성.

83) 움의 이름.